

<서평>

##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Manuscripts and their Texts***

(D. C. Park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장동수\*

### 1. 들어가는 말

본서는 신약성서의 본문을 담고 있는 사본들, 그 사본들에 관한 연구, 그리고 신약의 각 부분별 본문 전승의 역사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입문서인데, 해당 분야 대학원 이상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저자인 D. C. Parker는 영국 버밍햄 대학 신학과 종교학부의 신학교수 및 본문연구와 전자 비평본 연구소의 책임자이다(the Edward Cadbury Professor of Theology and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Textual Scholarship and Electronic Editing at the Department of Theology and Religion, University of Birmingham). Parker 교수의 주 관심사는 신약성서 본문비평과 그리스어와 라틴어 사본학이다.<sup>1)</sup>

---

\* 침례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 교수, 신약학.

1) Parker의 저술은 본서를 위시하여 *Codex Sinaiticus. The Story of the World's Oldest Bible* (London: British Library and Peabody: Hendrikson, 2010); *Manuscripts, Texts, Theology. Collected Papers 1977-2007* (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2009); P. Parsons et al. ed., *Papyrus 4968 in The Oxyrhynchus Papyri 74* (London: Egypt Exploration Society for the British Academy, 2009), 1-45; *Textual Variation: Theological and Social Tendencies? Papers from the Fifth Birmingham Colloquium on the Textual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Texts and Studies 5 (Piscataway: Gorgias Press [with H.A.G. Houghton], 2008); The American and British Committees of the International Greek New Testament Project, eds., *The New Testament in Greek IV: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vol. 2, the Majuscules (New Testament Tools and Studies) (in association with U.B. Schmid W.J. Elliott) (Leiden: E. J. Brill, 2007);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n the Byzantine Tradition*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2007); "Textual Criticism and Theology", *Expository Times* 118 (2007), 583-589; *The Byzantine Text of the Gospel of John* (with R. L. Mullen)(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2007); *Vetus Latina Iohannes. The Manuscripts in Electronic Transcriptions* (<http://itsee.bham.ac.uk/iohannes/vetuslatina/index.html>); *Transmission and Reception. New Testament Text-critical and Exegetical Studies*, Texts and Studies 4 (edited with J. W. Childers)(Piscataway: Gorgias Press, 2007); *Calvini Commentarius in Epistolam ad Romanos* (Ioannis Calvini Opera Omnia denuo

## 2. 해설적인 내용 요약

본서는 저자가 서론(Introduction)에서 밝혔듯이, 체제와 내용 면에서 참신하게 이루어졌으며 크게 3부로 구성되었다. “THE DOCUMENTS”로 명명된

---

Recognita et Adnotatione Critica Instructa Notique Illustrata, Series II Opera Exegetica Veteris et Novi Testamenti) (with T.H.L. Parker) (Geneva: Droz, 1999); *The Living Text of the Gospe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Codex Bezae. Studies from the Lunel Colloquium June 1994*, New Testament Tools and Studies 22 (with C.-B. Amphoux) (Leiden: E. J. Brill, 1996); The American And British Committees of the International Greek New Testament Project, eds., *The New Testament in Greek IV.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vol. 1, the Papyri (New Testament Tools and Studies 20) (with W.J. Elliott) (Leiden: E. J. Brill, 1995); *Codex Bezae. An Early Christian Manuscript and Its Tex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aul's Letter to the Colossians by Philip Melancthon*, translated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Historic Texts and Interpreters in Biblical Scholarship 8 (Sheffield: The Almond Press, 1989);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by B. M. Metzger and B. D. Ehrman”,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57 (2006), 551-567; “The Mountain and the Desert”, R. S. Sugirtharajah, ed., *Wilderness Essays in Honour of Frances Young*, Library of New Testament Studies 295 (London: T. & T. Clark, 2005), 59-65; “Jesus and Textual Criticism”, J. L. Houlden, (ed.), *Jesus in History, Thought and Culture*, ABC Clío 2 (2004), 836-841; “Through a Screen Darkly: Digital Texts and the New Testament”,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25 (2003), 395-411; “A Comparison Between the Text und Textwert and the Claremont Profile Method Analyses of Manuscripts in the Gospel of Luke”, *New Testament Studies* 49 (2003), 108-138; “The Quest of the Critical Edition”, *Variants* 1 (2002), 33-42; “The Development of the Critical Text of the Epistle of James. From Lachmann to the Editio Critica Maior”, A. Denaux, ed.,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and Exegesis: festschrift J. Delobel*,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161 (Leuven: Peeters, 2002), 317-330; “Et Incarnatus Est”,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4 (2001), 192-228; “The New Oxyrhynchus Papyrus of Revelation (P115)”, *New Testament Studies* 46 (2000), 159-174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는 그의 학문적인 역량과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Parker는 St. Andrews 대학에서 신약성서와 교회사 전공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Cambridge대학에서 석사 후(postgraduate) 과정과 성공회 신부 수업을 하였다. 북 런던과 Oxfordshire에서 8년간의 목회를 마친 후 1985년 Birmingham 대학으로 옮겼으며 Queen's College에서 1993년까지 가르쳤다. 그는 네덜란드의 University of Leide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Parker는 1987년부터 the International Greek New Testament Project(주로 IGNT프로 지칭함)의 편집이사(Executive Editor)로 있다. IGNTP는, 영국과 북미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는 신약본문 연구 조직체인데, 독일 Münster 대학의 신약본문 연구소(the Institut für neutestamentliche Textforschung)와 함께 최근에 Novum Testamentum Graece, Editio critica maior 시리즈의 요한복음 비평본을 작업하고 있는 중이다. Parker가 수행하고 있는 또 다른 최근의 연구 project들은 Philip Burton박사와 함께하는 요한복음 라틴어 비평본과 시내사본(Codex Sinaiticus)의 전자 비평본이다. 그는 또한 옥시린쿠스 파피루스(Oxyrhynchus papyri)에서 나온 새로운 사도행전 사본들을 중심으로 당해 사본의 최초 비평본을 출판하였다. 그는 Texts and Studies의 편집자이며, Biblical and Patristic Literature (published by Gorgias Press) and Arbeiten zur neutestamentliche Textforschung (published by De Gruyter)에도 연구논문을 실고 있다.

I부는 신약성서 사본학(palaeography)으로 볼 수 있는 사본들에 관한 연구이고, “TEXTUAL CRITICISM AND EDITIONS”로 명명된 II부는 신약성서 본문비평과 비평본에 관한 연구이다. I부와 II부는 각각 세 장으로 구성되었다. “THE SECTIONS OF THE NEW TESTAMENT”로 타이틀이 붙여진 마지막 III부는 본서의 특징적인 부분인데, 신약성서의 그룹을 사본의 모음집의 형태를 따라 요한계시록, 바울서신, 사도행전과 공동서신, 그리고 사복음서로 나누어서 사본의 현황과 본문연구에 관한 네 개의 장과 마지막 결론 장이 있다.

제 I부의 첫 장이자 책 전체의 첫 장은 사본에 관한 연구인데, 총 아홉 개의 작은 단위로 구성되었다. 단락 1에서는 기독교 성서는 거의 확실하게 고대 책 형태인 codex였을 것으로 보고, 그 발전과정에 관하여 논의한다. 즉, 코덱스와 두루마리(roll)라는 두 가지 책 형태와 파피루스(papyrus)와 양피지(parchment)라는 두 가지 재료의 출현에 대한 탐구과정을 설명한 뒤에, 비용의 문제(codex가 두루마리보다 25%는 절감됨), 두 곳 이상을 찾기에 편리한 점, 초기선교사들의 운반의 편리성, 복음서 혹은 바울서신 등 여러 책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초기 기독교 책은 codex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한다. 이와 더불어 저자는 2세기 그리스어 파피루스 사본인 P66을 필두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띄어 쓰기도 하지 않고 구두점도 없으며 한 단으로 총 열 아홉 줄로 되어있고, 페이지수도 그리스어 알파벳(NA=41)으로 표기되었고, 소위 nomina sacra (sacred names)는 약자로 표기되었다는 사본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다. 이어서 전형적인 4세기 codex 조각 사본(Gregory-Aland 0171)을 소개하고 나서 동일시기의 성서로 볼 수 있으며 콘스탄틴제국 교회(Constatinian Church)의 산물인 그 유명한 시내사본(Codex Sinaiticus, Gregory-Aland 01)을 소개한다. 저자는 계속하여 4세기의 라틴어 복음서 사본(Codex Vercellensis), 6세기의 시리아어 번역본 사본, 8세기의 그리스어 복음서 사본(Gregory-Aland 07), 가장 오래된(9세기) 그리스어 소문자(minuscule) 사본(Gregory-Aland 461), 라틴어 문자의 혁명이 일어났던 9세기경의 카롤링거 왕조 시대의 라틴어 사본(Codex Theodulphianus)을 차례대로 소개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소문자 사본의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처음으로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언급하고 이 단락을 끝낸다.

단락 2에서는 고문서학(palaeography), 즉 사본학에 한하여 소개한다. 원래 사본학의 일차 목표는 단순하여 고대 문서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었고, 또 다른 목표는 사본의 연대와 존재하였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었음을 저자는 말한다. 이와 더불어서 사본에 나타난 예술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고, 피지

의 제작 과정도 조사하고, 제본의 형태와 구조도 연구하는 것이 사본학의 또 다른 목표로 첨가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단락 3에서, 이제는 정착이 된 그리스어 신약 사본들의 분류로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파피루스 사본(papyri), 대문자체로 모두(두 개는 종이에 기록됨) 피지에 기록된 대문자 사본(majuscles), 소문자체로 피지나 종이에 기록된 소문자 사본(minuscles), 교회력에 따라 구성된 성구집 사본(lectionaries)이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분류방법의 기준은 필기재료, 문자체의 크기, 사본이 담고 있는 내용 등의 세 가지라는 점도 지적한다. 이런 신약성서의 그리스어 사본과 그 분류방법에 이어서, 저자는 C. R. Gregory(*Die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Leipzig, 1908)의 사본 분류방법을 필두로, Gregory의 업적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Kurt Aland의 『신약 그리스어 사본의 요약 목록』(*Kurzgefasste Liste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Berlin, 1963)에 대한 해설, Richard와 Olivier의 업적, Gregory-Aland의 사본정보를 포함하여 사본의 팩시밀리본, 사진본, 재필사(transcription)와 사본대조 정보, 단행본과 논문,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의 분류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Elloitt의 *Bibliography (A Bibliography of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Cambridge, 1989, 2000, 2004, 2007), 11,240개의 그리스어 및 라틴어 본문을 실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인 The Leuven Database of Ancient Books (<http://ldab.arts.kuleuven.be/>), K. W. Clark의 *Catalogues (A Descriptive Catalogue of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in America*, Chicago, 1937), *Text and Textwert* 시리즈 (*Text and Textwert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Berlin and New York, 1987)에 관하여 상술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비평본들이 어떤 사본들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그리고 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사본(majuscles 혹은 uncials), 소문자 사본(minuscles), 주석 사본(commentary manuscripts), 성구집 사본 등의 전문적인 연구 자료들에 대하여 소개한다.

제 1장의 단락 4에서 저자는 신약성서의 최대 사본 군(群)을 이루고 있는 라틴어 번역본 사본을 상술하는데, 개괄적인 설명에 이어 라틴어 사본 연구의 도구 제시, 라틴어 사본학 연구 안내를 하고 나서 고대 라틴어 번역본 연구와 불가타 사본 연구를 위한 도구들에 대하여 각각 상술하고 있다. 고대 번역본 사본의 연구의 다음 단계로 저자는 단락 5에서는 시리아어 번역본 사본에 관하여, 단락 6에서는 콥트어 번역본 사본에 관하여 논의하고, 단락 7에서는 두 개 이상의 언어로 된 사본에 관하여 설명한다. 단락 8에서는 신약성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사본들을 소개하는데, 여기에서는 시내사본(Codex

Sinaitus, 01, Ⲙ), 알렉산드리아 사본(Codex Alexandrinus, 02, A),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03, B), 에프라임 재필사본(Codex Ephraemi Rescriptus, 04)을 포함하는 고대 그리스어 사본들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설명과 연구 자료를 제시하고, 고대 라틴어 사본에 대한 설명과 통계, 9세기 라틴어 성서들, 비잔틴시대 그리스어 사본과 통계 및 연구자료, 시리아어 번역본, 콥트어 번역본, 중세 서방의 사본들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시대와 인쇄기 발견 시대의 상황에 대하여 소개한다. 마지막 단락 9에서 저자는 본 장에서 자신이 제시한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여 대문자 사본 724에 대하여 조사해 보는 실례(test case)를 들고 있다.

제 2장은 사본의 연구의 실제적인 기술에 대한 논의인데, 서론에 이어서 사본이 보관되고 있는 도서관을 방문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단락 1과 2). 단락 3에서는 도서관을 방문하여 사본을 연구조사할 때에, 도서관 위치와 사본 번호, 사본의 형태, 기본적인 통계(folio 크기, 사본의 크기, 단의 수, 줄 수 등), folio 수, quire(일반적으로 8장의 folio로 구성)의 배열, 소실된 quire에 대한 진술, 사본의 재질(피지, 종이, 혹은 파피루스, 커버, 장정, 잉크, 색깔 등등), 연대, 내용(언어, 책의 순서), 사용된 장치(주석, 구두점, 장절표시 등), 후기(colophons), 본문적 중요성(누가 언제 본문대조연구를 하였는가, 본문 유형은 무엇인가?), 사본의 전달 역사, bibliography 등을 적는 것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한다. 단락 4에서는 사본에 대한 본문대조연구(collation) 자료를 만들기에 대하여 준비(물) 단계, 본문대조연구 단계 안내, 그리고 실례를 들어 설명하기가 있다. 단락 5와 6은 각각 사본의 전자 필사본(electronic transcription)과 필기 필사본(paper transcription)을 구축하는 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3장은 지금까지 논의한 사본들과는 다른 형태의 증거 사본들에 대한 설명인데, 교부 인용문, 번역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문과 같은 여타 자료들에 대하여 소개한다. 서론(단락 1)에 이어서 단락 2는 교부 인용문에 관한 내용인데, 교부 인용문을 수록하고 있는 (비평)본들을 소개하고, 인용문들을 평가하는 법, 교부 인용문 연구를 위한 여러 도구들을 상술하고 나서, 세 가지의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언급한다. 즉, 교부들의 글로부터 성서의 인용문들을 구축하는 일, 최초의 기독교 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신약 인용문에 대한 연구, 신약 위경에 대한 연구 등이다. 단락 3은 번역본에 관한 내용인데, 서론에 이어서 라틴어 번역본, 시리아어 번역본, 콥트어 번역본, 아르메니아어 번역본, 그루지아어 번역본, 에티오피아어 번역본, 아랍어 번역본, 슬라브어 번역본, 고트어 번역본, 기타 번역본들에 대하여 약술한다. 이

렇게 간략하게 설명한 이유는 저자 자신이 밝혔듯이 번역본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점도 있고 제 III부에서 설명할 것과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제 II부는 본문비평과 비평본들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특이한 단어 “tradents”를 포함하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는 제 4장은 본문(text)의 “담지물”(tradents)로서의 사본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저자는 두 개의 사본의 필사 과정을 소개한다. 즉 이중 언어(그리스어와 라틴어) 사본인 Codex Mediolanensis의 필사와 또 다른 이중 언어 사본인 Codex Bezae의 라틴어 보조 페이지에 관한 것인데, 모두 9-10세기경의 라틴어 필사자들에게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례이다. 이어서 가족사본(family), 사본의 수정(correction), 필사된 사본이 적으면 이독(different reading, variant)도 적는가?, 필사자는 대상 사본을 개정하려고 했는가?, 필사자는 받아쓰기(dictation)를 하였는가? 등에 관한 문제들을 차례로 다룬다.

제 5장, 본문비평(textual criticism)은 여러 단락으로 구성된 장이다. 단락 1은 지난 200년의 신약성서 본문비평사인데, 우선 라흐만의 계보법(Lachmannian stemmatics), 미국 학자인 시카고 대학의 Colwell과 Tune의 계량분석법(QA, quantitative analysis), 사본간의 우연한 일치, 진화(evolution) 및 유전학(genetics)과 계보법(stemmatics)과의 관계, 핵심부분에 집중하는 계보적 방법론(coherence-based genealogical method) 등 본문비평 방법론의 변천사를 요약한다. 저자는 이어서 본문 유형(text type), 다수 본문 이론(majority text theory), 그리고 복수의 본문 비평 방법론이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단락 2는 본문과 본문 편집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다. 저자는 본문 역사의 개념과 본문을 편집하는 과정에 관하여 논술한다. 단락 3은 각각 본문비평과 역사(history), 석의(exegesis), 신학(theology), 그리고 세계관(world view)의 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제 6장은 비평본과 그 사용법(Editions and how to use them)에 관한 내용이다. 단락 1은 비평본의 역사인데, 우선 왜 비평본이 필요한가의 문제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사본에서 인쇄된 책으로의 전이(transition) 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여러 비평본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즉, 한 개 이상의 증거 사본의 본문을 전부 제시하는 비평본, 한 개 이상의 증거 사본의 본문을 압축해서 제시하는 비평본, 수용 본문(received text), 다수 본문, 그리고 비잔틴 본문의 비평본들에 대하여 차례로 소개하고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인쇄된 비평본에서 전자 비평본으로의 이동을 소개한다. 단락 2에서는 비평본의 목적을 논

하되, 대, 소 포켓용의 학문적인 인쇄 비평본과 인쇄된 독서용 비평본으로 나누어서 해주고 있다. 단락 3에서는 주요 비평본을 차례로 나열하고 그 사용법을 각각 상술한다. 우선 Tischendorf 8판(Edictio octava critica maior, 1872-84)에 대하여 이독(이문)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Von Soden의 editio maior에 대하여, 그리고 IGNTP(International Greek New Testament Project)의 누가복음 비평본에 대하여 언급한다. 저자는 이어서 이제는 가장 일반화된 학문적 비평본인 네스틀레-알란트(Nestle-Aland) 27판에 대하여 설명한다. 곧이어 Vestus Latina와 Edition Critica Maior, 그리고 복음서대조(Synopses)의 비평본에 대하여 소개해 준다. 마지막으로 Merk, Bover, Kilpatrick 등 나머지 비평본들을 언급한다.

마지막 단락인 단락 4에서 저자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전자 비평본(critical electronic edition)에 대하여 상술한다. 그 목적과 정의(definition)에 이어서 케이스 연구를 제시하고 나서, 그 장점과 단점을 상술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다. 출판되는 일반적인 비평본과는 달리 전자 비평본은 기본적으로 각 사본들의 본문들과 종합된 최선의 비평 자료들을 동시에 볼 수 있고 자신의 비평본을 만들 수도 있는 개념의 본문연구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그러했듯이, 이곳에서도 저자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도 언급하지만, 필자가 공부하였던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의 The Center for New Testament Textual Research([www.accordancebible.com/](http://www.accordancebible.com/))에서 개발된 Accordance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저자는 컴퓨터 시내 사본(virtual Codex Sinaiticus), 디지털 네스틀레-알란트 28판, 요한복음 대문자 사본들(majuscules of John)을 편집하는 Principio Project, 고대 라틴어 요한복음 비평본(Vestus Latina Ioannes), Münster 연구소와 Birmingham 대학에서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작업(The Virtual Manuscript Room) 등을 소개해 준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전자 비평본의 장점들로는 언제든지 자료나 본문이 추가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좀 더 정확한 비평본을 만들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이동성이 있는 본문비평장치(apparatus)에 접근할 수 있고, 사본의 이미지와 필사본을 동시에 평가해볼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비평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점들이다. 그러나 저자는 새로운 자료에 대한 기다림이나 불확실성의 장기화 등이 단점으로 대두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IGNTP와 Münster 연구소가 연합하면서 더 놀라운 결과물들이 나올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본서가 다른 동종의 책들과 구별되는 점 중의 하나인, 마지막 III부는 신약

성서의 그룹별 분류(요한계시록, 바울서신, 사도행전과 공동서신, 그리고 복음서)를 따라서 당해 그룹의 사본의 종류와 본문 연구의 역사, 그리고 본문비평의 실례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7장은 요한계시록의 본문 연구에 관한 장인데, 남아있는 사본의 수가 신약의 다른 부분보다는 비교적 적어서 다루기가 용이하고 그 연구의 역사가 신약 전체의 본문 연구 역사의 축소판이며 장르나 본문 전달방식(구두와 쓰기)의 특이성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신약성서 사본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하기에 좋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러한 서론적인 언급에 이어서, 저자는 요한계시록 사본연구의 역사를 개관하는데, 우선 출판사의 독촉에 시달리던 에라스무스가 계시록의 마지막 여섯 구절은 라틴어 사본에서 헬라어로 역으로 번역하여 새로운 사본을 하나 만든 에피소드로 시작하여 Lachmann과 Tregelles(*The Greek Testament*, 1897)의 공헌, Tischendorf의 비평본 8판(1872-84)과 Westcott와 Hort의 비평판(1881)과 그들의 공헌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Hoskier의 2권짜리 방대한 작업(*Concerning the Text of the Apocalypse. Collations of All Existing Available Greek Documents with the Standard Text of Stephen's Third Edition together with the Testimony of Versions, Commentaries and Father. A Complete Conspectus of All Authors*, London, 1929)에 대하여 비평한다. Hoskier의 이 작업은 정확하고 잘 구성된 본문대조작업(collation)이어서 이 측면에서는 질적으로 찬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는 편견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본문비평가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계속하여 요한계시록의 사본들, 번역본들(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사본들), 주석류, 본문의 형태, 요한계시록 본문비평의 예들의 순서로 논의를 펼친다. 본문비평의 예들로는 일반적인 고려사항을 논하고 나서, 짐승의 숫자(계 13:18, 666 혹은 616)와 몇몇 다른 이문들(계 1:5; 4:3; 1:15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신약 본문비평을 계시록부터 시작하면 좋은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끝을 맺는데, 우선은 계시록의 증거사본들이 적기 때문에 그 수에 늘리지 않고 대체적으로 본문을 결정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추천하기를, 네스틀레-알란트 비평본의 본문비평장치를 활용하고, Hoskier의 비평장치와 Schmid의 해설을 참조하면서 비평적인 기술을 익히면, 신약의 다른 더 복잡한 이문들을 다루기 위한 아주 좋은 준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제 8장은 바울서신 연구에 관한 내용이다. 저자는 앞 장(계시록)과 흡사하게 서론에 이어, 바울서신의 기록과 수집의 관계 및 히브리서의 문제, 바울 문집의 발전 단계, 사본들, 번역본들(시리아어, 라틴어, 콥트어 사본들), 주석류들, Euthaliana(사도행전과 서신서 모두에 구두점, 줄과 단락 구분과 함께 해



석이 붙어 있는 보조 장치) 등을 다룬다. 바울서신의 이문들을 논하는 단락은 우선 수집형성(과정)을 말해주는 이문들을 다루고 나서, 그 유명한 로마서의 결말과 에베소서의 문제를 다룬다. 이어서 바울서신에서 유명한 다른 이문으로서 고린도전서 14:34-35와 히브리서 2:9에 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바울서신(히브리서 포함 열네 서신)의 편집역사(Westcott-Hort와 Zuntz의 연구를 중심으로)에 대하여 언급한다.

저자는 로마서의 결말의 문제를 T. W. Manson의 주장(1940년대에 로마서 1-1장은 로마로 보내진 편지이고, 로마서 1-16은 에베소로 보내진 편지라고 주장) 이래 학계의 흐름을 바꾼 Harry Gamble의 연구(그리스-로마의 1세기 편지형식과 로마서에 대한 사본학적 연구를 통하여 로마서 1-16장이 로마로 보내진 서신이라고 확증함)에 이르기까지를 요약하고 있다. 에베소서의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에베소서가 라오디게아서라고 주장한 Marcion의 주장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에베소서 1:1의 “에베소에 있는”(ἐν Ἐφέσῳ)이라는 어구가 P46, 시나사본, 바티칸 사본 등에는 누락되어 있는 점에 관한 논의이다. 저자는 고린도전서 14:34-35의 이문에 대해서는 Zuntz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후대의 삽입으로 보는 Fee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히브리서 2:9의 이문, 인가에서 “하나님 은혜로”(χαρίτι θεοῦ) 대(對) “하나님 없이”(χωρίς θεοῦ)인가에서 전형적인 이문 평가과정을 설명한다. 즉, 외적 증거(external evidence)를 살핀 다음, 내적증거-저자의 언어 스타일 그리고 신학사상-를 살핀 연후에, 다른 모든 이문들의 출현을 설명해줄 수 있는 이문이 원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제 9장은 사도행전과 공동서신(catholic epistles)에 관한 장이다. 저자는 전통적으로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이 한 단위로 묶여져 왔다는 사실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이 장을 시작한다. 두 번째 단락은 사본들이 복잡하기로 유명한 사도행전에 관한 논의이다. 우선 사도행전의 장르와 본문비평에 관하여 상술한 저자는 사도행전의 그리스어 사본들, 번역본들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본문현상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 저자는 공동서신에 대하여 사도행전과 유사한 작업을 하고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저자는 공동서신의 그리스어 사본들, 번역본들, 주석류들에 대하여 다룬다. 공동서신의 본문 전달의 역사에 이어서 “추측적인 교정”(conjectural emendation)과 유다서의 문제에 대하여 상술한다.

사도행전의 사본적인 현상은 서방 사본 계열(특별히 베자 사본, D)은 동일한 시기의 알렉산드리아 사본 계열의 대문자 사본들(사본 01, 03, 05)보다는 본문의 길이가 10% 가까이 길다는 점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세 가지 가

설이 있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첫째로, Lachman, Tregelles, Tischendorf, Westcott-Hort, Nestle-Aland 등이 지지하는 견해로 알렉산드리아 사본 계열의 사도행전이 누가가 작성한 것이고 서방 계열의 사본계열은 그 후에 개정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로, 첫 번째와는 반대로 D 사본이 누가의 작품이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계열이 후대의 개정이라는 주장인데(William Whiston, A. C. Clark, Silva Lake, Read-Heimerdinger 등),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셋째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완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사본 계열 모두는 이를 완성하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보는 견해인데, 19세기 말에는 Friedrich Blass, 최근에는 Boismard와 Lamouille, Strange 등의 주장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두 가지 사본 계열로 나누어서 사도행전의 본문 현상을 보지 말고, 사도행전도 신약의 다른 부분의 본문비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면서, Epp의 연구 등을 들어서 서방 사본이 길어진 연유에 대하여 달리 연구해볼 가치가 있음을 제안한다. 즉, 길어진 서방본문(D 사본)은 사도행전 본문 연구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본문의 회복과 본문의 발전 방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하며,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을 읽고 사용하였던 방식을 연구하는데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어서 공동서신의 이문연구의 예로 베드로후서 3:10의 예를 들면서, 최후의 경우에는 본문비평가들이 추측적인 교정(conjectural emendation)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2:1-18; 3:1-3과 유다서 4-13, 16-18이 서로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문학적인 상관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저자는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의지한 쪽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히고 있다.

제 III부의 마지막 장인 제 10장에서 저자는 네 복음서에 대하여 다룬다. 서론에 이어서 복음서 본문연구의 보조 자료들(주로 단락 분류방식), 즉 유세비우스의 비평장치(Eusebian Apparatus, 복음서 대조서), 바티칸 사본의 단락 구분(Vatican paragraphs),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 단락 분류 방식에 대하여 소개한다. 이어서 저자는 네 복음서의 사본들을 2-4세기(마가복음은 6세기까지)의 그리스어 사본들을 중심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순서로 소개하고, 복음서의 주요 번역본들(시리아어, 라틴어, 콥트어)과 여타 번역본의 최초의 비평본에 대하여 상술하고, 네 복음서 주석류에 관하여 소개한다. 저자는 또한 Tatian의 디아테사론(Diatessaron, 네 복음서를 조화적으로 통일해서 하나의 복음서로 만든 종합 복음서)과 Marcion의 복음서에 대하여 사본적인 논의를 하고, 복음서의 비평본문들(Legg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IGNTP의 2권짜리 누가복음, 그리고 Swanson의 복음서 비평본)을 소개한다. 저자는 마

지막으로 다른 장들에서 그러하였듯이, 복음서들의 본문비평의 실례들에 대하여 상술한다. 우선 자신의 저서 *The Living Text of the Gospels*(Cambridge, 1997)에서 논의하였던 점들을 상기시키면서 복음서의 이문 연구의 특성에 대하여 언급한 다음, 주로 공관 복음서들에서의 특징적인 이문 현상인 조화(harmonisation)와 이런 작업을 하였던 필사자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여덟 가지 원칙(canon)들을 제시하고, 마가복음의 말미(막16:9-20), 요한복음 7:53-8:11, 마가의 스타일과 극단적 선택주의(thoroughgoing eclecticism, C. H. Turner, G. D. Kilpatrick, J. K. Elliott 등이 발전시킨 견해)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나서 결론을 맺는다.

타티안은 시리아인이다. 150-165년 어간에 로마에 왔다가 172년에 시리아로 돌아가서 네 복음서를 하나의 복음서로 조화 있게 만든 것이 디아테사론인데, 제 5의 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고 사본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작성했는지 시리아어로 작성했는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정보를 알려준다. 간접 자료들로서는 에프라임(Ephraem)의 주석이나 아르메니아 번역본, 라틴 자료들인데, 디아테사론이 중요한 이유는 타티안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리스어 사본에 대한 정보를 알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르시온은 타티안과 같은 시기에 로마에서 활동하였는데, 그는 누가복음만을 가지고 자신이 수정한 하나의 복음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도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그를 공격하던 터툴리안의 글속에 남아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마르시온은 그리스어로 작성하였고 터툴리안은 라틴어로 글을 썼다는 데 있다.

마가복음 말미의 경우, 네 가지 이문들(짧은 말미, 중간 말미, 긴 말미, 중간 말미와 긴 말미가 합해진 것)을 소개하고 마가복음 16:8(...ἐφοβοῦντο γάρ)의 접속사 γάρ로 끝이 나게 된 연유를 요약한다. 첫째는 아주 초기 사본에 이 지점 이후가 잘려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가의 의도적인 결말일 수도 있다고 말해준다. 이어서 그는 Kelhoffer의 긴 말미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Gilfillan Upton의 담화 행동(speech act) 이론까지 소개하고 있다. 요한복음 7:53-8:11의 이문의 경우에는 사본의 내적-외적 증거들을 살피는 방법 이외에, 문학적 분석이나 서사분석 등도 소개하면서 이 이문 연구에 대한 Bart Ehrman의 교부(Didymus) 인용문 연구의 공헌을 언급하기도 한다.

본서의 마지막 장인 제 11장은 본서 전체에 대한 짙막한 결론인데, 마지막 단상(final thoughts)이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저자의 두 쪽짜리 후기라고 볼 수 있다. 본서에서 저자 자신이 진술한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미미한가에 대한 솔희와 함께 신약성서의 사본들과 본문들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을 말하면서 더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서, 번역본 연구, 교부 인용문 연구, 사본 전송 역사에 대한 연구, 필사자들의 후기인 colophon에 대한 연구, 그리고 본문 연구 이론과 본문 편집 원칙 및 새로운 분야인 전자 편집 등을 거론하고 있다. 책의 말미에 저자는 다섯 쪽의 용어 해설집(glossary)과 사본의 색인(index of manuscripts)을 실고 있다.


### 3. 나오는 말(비평과 제안)

신약성서 사본학과 본문비평의 양대 거두인 Kurt Aland의 사망 이후 유일하게 생존했던 Bruce Metzger가 2007년 임종함으로써 D. C. Parker는 대서양 양안을 아우르는 이 분야의 독보적인 학자인 셈이다.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그의 학문적인 추구들이 실감 있게 서려있는 본서는 후학들에게 귀중한 안내서와 자극제가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본서의 독서를 끝내면서 필자는 다음 같은 몇 가지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첫째, 본서는 당해 분야의 개론서를 뛰어 넘는 학문적인 저서이다. 그러므로 석사 이상의 대학원생들과 학자들을 위한 책이다. 해당분야의 심도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성서 본문비평의 수많은 세부 분야의 연구 아이디어(석, 박사 논문 주제들을 포함하여)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신중한 주석가들은 본문의 섬세한 비교를 통하여, 혹은 여러 필사본에 남아있는 필사자들의 여러 고뇌와 행적을 통하여 구체적인 본문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본서가 신약성서 본문에 대한 진지한 연구자는 누구나 읽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둘째, 본서에 각주나 미주가 없이 본문 중간에 작은 글씨체로 해설이 딸린 bibliography가 있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 또한 책의 서두에 주요 저술에 대한 약어와 함께 열네 쪽에 달하는 당해 분야의 주요 저술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문을 읽다가 각주나 미주를 보느라 읽고 있던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해주고, 바로 다음에 있는 해설이 붙은 자료들을 통하여 더 심도 있는 지식을 접할 수가 있고, 원한다면 그 자료들을 찾아보게 만들어 주는 장점이 있다. 단점이라면 이 해설이 붙은 참고자료 단락의 font가 작기 때문에 어떤 독자들에게는 본문을 읽다가 맥이 끊어질 수도 있게 하는 가능성이 단점이 될 수도 있으리라 짐작된다.

셋째, 사본에 대한 plate가 본서에는 하나도 없고 책의 서두에서 저자 자신의 homepage인 [www.cambridge.org/parker](http://www.cambridge.org/parker)에 실려 있는 51개의 plate의 목록을

신고 있을 뿐이다. 이 점도 본서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제한된 페이지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점과 책 제작의 편이성은 장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본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기독교 성서의 책 형태를 설명하는 단락에서는 독자들이 불편함과 어색함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3쪽에서 “A typical fragment of a fourth-century codex looks like this:  (2)”라고 말하곤 아무런 그림이 없으니, 독자들이 궁금하고 불편해할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Aland(독일)와 Metzger(미국)의 신약본문비평 개론서는 이미 한국에 번역되어 해당 분야의 귀중한 안내서로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Metzger의 저서는 그의 제자 Bart Ehrman 교수가 합세한 제 4판이 한국성서학연구소(장성민, 양형주, 라병원 공역/장홍길 감수, 『신약의 본문』, 2009)에서 번역 출판되어 있다. 현존하는 대학자이자, 대륙과 북미의 학자들과 깊은 학문적 교류뿐만 아니라 그들의 리더로 있는 Parker 교수의 본 저술이 한국어로 조속히 번역 출판되어 신약성서 사본학 및 본문비평에 관심이 있는 학자나 학생들에게 좋은 안내서와 자극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주요어>(Keywords)

신약성서 사본, 사본학(고문서학), 본문비평, 비평본, 번역본, 전자 비평본.  
new testament manuscript, palaeography, textual criticism, critical edition, versions, electronic critical edition.

(투고 일자: 2011. 2. 18; 심사 일자: 2011. 2. 25; 게재 확정 일자: 2011. 3. 29)

<Abstract>

**Book Review -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Manuscripts  
and their Texts***

(D. C. Park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rof. Dong-Soo Chang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This review of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Manuscripts and their Texts* written by D. C. Parker contains an introduction of the author, an annotated summary of the work, and the reviewer's critical comments and suggestion. This is the first major English-language introduction to the earliest manuscripts of the New Testament to appear for over 40 years. This book is comprised of 3 parts containing 11 chapters. Part I describes documents (manuscripts) of the New Testament with three chapters. Part II discusses textual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with three chapters. Part III treats, with perspectives of textual studies, each main section of the New Testament respectively, i.e. the Revelations, Paul's letters, Acts and catholic epistles, and four Gospels, with four chapters. The last eleventh chapter is the author's short conclusion to the book. A glossary and an index of manuscripts are provided at the end of the book.

As an essential handbook for scholars and students, it provides a thorough grounding in the study and editing of the New Testament text combined with an emphasis on the current dramatic developments in the field. Covering ancient sources (versions) in Greek, Syriac, Latin, and Coptic, it describes the manuscripts and other ancient textual evidence, and the tools needed to study them. It deals with textual criticism and textual editing, describing modern approaches and techniques, with guidance on the use of editions. It introduces the witnesses and textual study of each of the main sections of the New Testament, discussing typical variants and their significance. A companion website with full-colour images provides generous amounts of illustrative material, bringing the subject alive for the reader. This work is for scholars and postgraduate students of New Testament textual studies.

The author's comments on the text of the Greek New Testament give some

hints to us: “The text is changing. Every time that I make an edition of the Greek New Testament, or anybody does, we change the wording. We are maybe trying to get back to the oldest possible form but, paradoxically, we are creating a new one. Every translation is different, every reading is different, and although there’s been a tradition in parts of Protestant Christianity to say there is a definitive single form of the text, the fact is you can never find it. There is never ever a final form of the text.” The following reviews on this book also might help us to guess easily the value of this book: “This work fills a current need for an up-to-date presentation of the discipline for students, and also will serve as a valuable resource for all scholars in New Testament studies.”(Choice); “Parker offers a fascinating and often humorous look into the world of manuscript studies and textual criticism.”(Laura J. Hunt, Moody Theological Seminary).